

# 전북 생태관광 기반시설 잇단 확충 '주목'

## 정읍시, 300억 투입 생태타운 만들고 원영습지 복원 나서 고창군, 운곡습지 주변 숙박·휴게시설 갖춘 에코촌 조성

정읍시와 고창군 등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생태와 관광을 접목한 자연친화적 관광 기반시설을 늘릴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전남 순천만 등 생태와 관광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자원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생태관광 자원과의 차별화한 관광 자원 육성만이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읍시는 "국립공원 내장산 주변의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국비 포함 300억원을

들어 내장호 일대에 생태탐방연수원과 생태관광타운을 만들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월영습지 복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정읍시의 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는 내장산 입구 옛 사슴목장 자리에 2018년까지 국비 등 150억원을 들여 생활관과 체험시설을 갖춘 생태탐방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난 2014년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월영습지도 새만금환경경과 함께 60여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습지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읍시는 또 73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내장호 일대에 생태관광타운을 조성하고, 생태탐방연수원과 내장수목원·조각공원·자생식물원·단풍생태공원·위터파크를 잇는 생태·문화시설 연계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도 총 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생태계 복원과 생태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고창군은 2018년까지 35억원을 들여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 주변의 용계마을 일대에 친환경 숙박·관광·휴게시설을 갖춰 체류형 생태관광을 할 수 있

는 '에코촌'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전북도가 추진하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2024년까지 모두 73억원을 투입해 생태탐방로·생태관찰시설·생태체험교육장 등을 만든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태와 관광, 문화 등을 묶은 관광자원이 미래 관광의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한 관광자원을 발굴·개발하고, 생태 자원을 보호하는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 광양시 매실가공·유통센터 착공

## 30억원 투입 8월 준공

광양시와 구례군 매실농가의 숙원사업이었던 매실가공·유통센터 건립이 본격화된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2014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매실가공·유통센터가 2년간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지난 11일 다압면 신월리 일원에 착공했다.

총 사업비만 30억원으로 오는 8월 준공 예정이다. 부지면적 7207㎡, 건축면적 1200㎡의 일반철골조 2층 구조로, 공장시설(621㎡)과 냉동설비(194㎡), 사무실·실험실(385㎡) 등이 들어서며 별도 비닐하우스 구조의 우메보시 건조장(180㎡)도 설치된다.

(사)빛그린매실사업단(단장 서인호)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가격하락 등에 각종 어려움에 직면한 광양·구례 매실을 대량으로 유통·가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실제 광양지역 매실산업은 지난 2000~2010년 사이 국내 매실 재배면적이 4배나 늘어났는데다 생산량도 4.8배 증가하면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매실생산량의 21%를 점유하고 있는 광양시는 지난 2011년 구례군과 광역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매실산업의 활로 찾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회원 300여명이 모여 빛그린매실(주)을 설립하고, 지난 2013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공모사업에서 1위로 선정돼 2014~2018년까지 5년간 60억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 지난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우수 지리적표시품 홍보 지원 공모사업'에서도 광양매실이 선정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하지만 지역 매실 농가의 소득하락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청매실 재배가 90% 이상 차지함에 따라 매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단순 생산이 아닌 가공제품 개발과 6차산업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중이다.

광양매실은 지난 10년간 매실 생산기반에 집중 지원해왔으며, 지난 2014년부터 가공, 유통, 마케팅, 기능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 다각화로 6차 산업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광양시는 또 현재 30여 종에 불과한 가공상품을 100여 종으로 늘리고, 소포장에서 고가에 이르는 상품 다양화에 주력하는 등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전략 상품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상호 매실유통사업추진단장은 "매실가공유통센터가 완공되면 매실산업의 발전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가공용 매실의 소비확대, 매실의 시중가격 안정화가 예상된다"며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실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지역은 3300여농가(1400여ha)에서 연간 1만1000여t의 매실을 생산해 52% (5만6081t)는 농협을 통해, 39% (4359t)는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일본뇌염 예초조사·방제

###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10월까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은 "오는 10월까지 일본뇌염 유행예초조사와 함께 방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남과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달 초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전주시 등 5개 지역의 외양간에서 모기를 채집해 이 가운데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하루 채집모기 500마리 이상에서 뇌염모기가 50% 이상이거나 바이러스나 유전자 검출되면 경보를 발령한다.

이 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이지만 극히 드물게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7월 13일 일본 뇌염모기가 처음 채집됐으나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



강진만 갈대축제 준비...구절초 56만본 식재 강진군이 오는 10월 개최하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군은 최근 군공터 삼신리 강진만 수변공원 내 1만1000㎡ 부지에 오는 9월 개화할 56만본의 구절초를 심었다.

# 봄향기 물씬나는 군산으로 공연 보러오세요

## 버스커즈 인 군산·은파호수공원 음악공연 등 볼거리 풍성

군산시가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길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동안 군산 개북동 시민예술촌 앞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전국 버스커즈 최강자를 가리는 '2016 버스커즈 인 군산'이 화

려하게 펼쳐진다.

16일 오후 2시 자유버스킹을 통한 예선전이 펼쳐지며, 다음날인 17일 오후 2시부터 본선 진출팀 중 전국 최고의 버스커를 뽑는 최종전이 열린다. 부대행사로 개북동 예술의 거리 곳곳에서 거리공연, 예술전시, 프리마켓과 푸드코र्ट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민예술촌(063-443-7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향연도 열린다.

군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주관으로 16일 오후 7시부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음악과 함께 봄을 산책하다'를 주제로 한 공연을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군산아리랑 빅밴드의 경쾌

한 음악공연과 원앙풍물의 신명나는 소리, 계절과 어울리는 아리울 시낭송회의 공연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은파호수공원에서 '봄을 그리다'를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무료 사진촬영도 실시한다.

김봉근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시민은 물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철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해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국경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 목포해수청 '신안·무안갯벌' 보전계획 수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습지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신안군 및 무안군 소재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은 지난해 말 신규 지정된 '신안 비금, 도초도 갯벌'의 보전계획과 지난 2001년 지정된 '무안갯벌'은 보전계획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습지 보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적인 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 홍보사업, 습지 생태계조사 등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신안 비금, 도초도 갯벌'은 대형 저서동물 총 111종 출현, 버들갯지렁이, 칠게,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급인 매, II급인 물수리, 황조롱이 등이 관측됐으며, '무안갯벌'은 '2015년 습지모니터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Red List)에서 심각한 멸종위기종인 '넙적부리도요'가 출현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는 등 중요 습지보호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증진과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 주택 / 투 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식당, 커피숍취적지(신주택/구창고) 매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 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3억3천만원
4. 나주시 송촌동 신축주택 대지596㎡ 건물85㎡ 남향 텃밭있음 동신대인근 매2억1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서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2억
6.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주택3층 교통편리 매7억원

농 지 / 임 야

1.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담 6,579㎡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매4억8천
2.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4,007㎡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일부 농림지역) 혁신도시인근 매9억7천만원
3.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 도로접 매7억원
4. 나주시 산포면 등성리 3,015㎡ 4차선도로변 생산관리지역 판매시설 공장 창고적합 매6억4천만원
5.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7,273㎡ 혁신도시근거리 보전 관리지역 연수원 공장적합 투자유망 매8억5천만원
6.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일반임야 18,838㎡ 2차선도로변 농림 지역 혁신도시근거리 매22억원
7.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담 4,807㎡ 생산관리지역 농로양호 투자유망 매1억6천만원
8. 나주시 금천면 신전리 담 8,825㎡ 매2억8천만원
9.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배18년생 과수원 7,934㎡ 혁신도시 1km 투자유망 매7억2천만원
10. 나주시 봉황면 용전리 담2,170㎡ 2차선 도로변 농업용 창고 적합 매7천2백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장흥군 안평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 순창군 북동면사무소 부근 대지 991㎡ 전원생활적합 4000만원
- 담양군 봉산면 외우리 600여㎡ 생교부 1억천
- 담양군 남면 만월리산 11883㎡ 위치·전망좋은 2억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주거지 2216㎡ 투자성 좋은 6천만원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3005㎡ 전원생활등 적합 4500만원

투자 · 매도 · 교환

- 차고지 적합 관산구 유스 호텔 부근 1446㎡ 1억6천
- 김제군 보라리파트 부근 2층 주택 대지 162㎡ 건물 150㎡ 1억4천
- 기흥동지 적합 화순 도원면 장항리 496㎡ 매도 2200만원
- 관산구 장수동 자연복지 공장·창고적합 1702㎡ 2억5천
- 무안군 망운면 옥사리 자연복지 2238㎡ 대출8천 매도 7300만원
- 단종주택월산동 보라리파트 부근 대지 109㎡ 건물 59㎡ 8300만원
- 상가주택 월산동 동신대 병원뒤 대지 187㎡ 건물 170㎡ 1억5천
- 월산동 농성초 옆면 건너편 땅 131㎡ 건물 174㎡ 1억9천
- 진도군 고군면 백포리산 16860㎡ 염소사육용 적합 3500만원
- 무안군 망운면 사무소 인근 국도접 전 1312㎡ 다용도 8500만원
- 담양군 광주경계 가든 땅 2394㎡ 가든은 운영중임 6억4천
- 사철적합 곡성군 옥사동 땅 4989㎡ 2층 빌딩과 창고등 있음 2억6천
- 창고·식당용 북구 장동동 2차선 도로접 주거지 2216㎡ 3억5천

상가건물

- 남구 월산동 농성초교부근 대지 136㎡ 3층건물 198㎡ 매도 2억2천
- 순창군 북동면 대지 662㎡ 3층건물 495㎡ 요양시설등 적합 은행 1억 5천 매도 2억2천 인수액 7천만원
- 월산동 병원적합 대지 331㎡ 건물780㎡ 4층건물 7억2천
- 월산동 문진각 부근 미당이 있는 2층 주택 리모델링 해서 식당으로 적합 대지 222㎡ 건물 131㎡ 은행 1억 매도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로 건너 대지 117㎡ 건물 74㎡ 1억2천
- 전대 정문부근 신축 월룸·상가 대지 166㎡ 건물 344㎡ 은행 1억5천 보증금 1억5천 월 381만원 매도 6억8천
- 신축빌딩 창성군 진원면 땅 1201㎡ 주택 112㎡ 3억2천
- 쌍촌역 부근 신축건물 대지 298㎡ 건물 567㎡ 원룸10 인접은 주인이 살고 전세 2억3천 월 265 매도 8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나주시 경현동 지하층~지상3층근린시설 토지450평  
요양병원추천 ▶ 감평가 31억 최저가 11억 (감평가의36%)
- 화순군 도곡면 전 359평 도로접 도곡농공단지 맞은편  
창고용지 소방도로접 ▶ 거래가 4천5백만원
- 나주시 경현동 담555평 포장도로접 다목적 이용가능  
주변환경좋은, 음식점,전원주택추천 ▶ 거래가 2억1천만원
- 북구 충효동 전360평 주변환경 좋은 투자가치높음  
전원주택지 적합 투자가치 ▶ 거래가 3천3백만원
- 북구 연제동 근린시설지하층~3층 연세동현대아파트부근  
도로접 사무실추천 ▶ 감평가5억2천 최저가3억7천만원

####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전북 김제시 옥산동 2층무인텔 건물579평 대지600평  
객실20개 현재운영중 ▶ 감평가 27억 최저가 12억원
- 북구 풍향동 원룸 3층건물101평 대지47평 교육대인근  
수익물건 ▶ 감평가 2억4천 최저가 1억7천만원
- 화순군 동면 건 449평 토지2,070평 전원주택부지추천  
도로접 마을입구 ▶ 감평가 13억2천 최저가 4억4천만원
- 서구 양동 건물425평 대지175평 숙박시설 방40개  
지하층~지상5층 ▶ 감평가11억 최저가6억(감평가의56%)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 오피스텔 매매

(여수 둔덕동 전남대와 성심병원 중간)

토지: 549㎡(166평) 건물: 2,510㎡(759평)

1층 주차장  
2층 상가 (110평 대형 세탁소 운영중)  
3층~7층 (원룸 47개 스리룸 2개)  
8층 36평형 아파트 2개 (각 방 3, 거실, 배란다, 텃밭)

용 8억 (금리3.3%)  
보 7천 / 실투자 6억 8천

☐ 월 세 → 1,450만  
☐ 매매가 → 15억5천

- 6억8천 투자하고 8층 36평 아파트에서 야경과 조망권 좋은곳에 살면서 매월 월세 1,000만원 수익발생
- 세금 면제 (1가구 1주택일 경우 세금 면제)
- 사택으로 사용가능 (회사나 개인 사무에서 구입 직원 복지 차원으로 사용)
- 게스트 하우스 사용가능 (여름 성수기 및 주말 여수를 찾는 여행객 수요 부족)

주인직거래 010-3684-3886